

[기획]

중도, 청산도, 유치·장평, 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증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3 담양 창평 유천리 고려전통식품 '기순도표 장류'

아무리 평범한 음식이라도 시간과 노력, 정성이 녹아들면 명품이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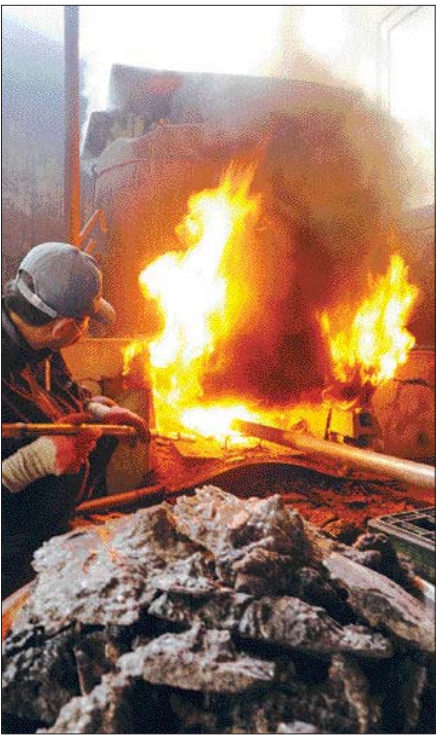
16일 매서운 꽃샘 추위를 뚫고 찾아간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의 '고려전통식품(대표 기순도)'은 전통 발효식품인 간장과 된장, 고추장이 '평범을 넘어 비범이 되는' 원리를 실감나게 보여줬다.

장류(醬類) 가운데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기순도 간장·된장·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많은 품이 들어갔다. 완제품을 먹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기순도 대표가 고려전통식품 안뜰에 놓인 항아리 뚜껑을 열고 간장의 숙성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기다림으로 빚어낸 전국 최고 명품



커다란 가마에 담긴 대나무통이 소나무 장작불에 태워지면서 가마 아래로 죽염이 녹아내리고 있다.

1kg 17만원 일반 된장 10배 '없어서 못팔아' "자연의 힘과 인간의 노력 어우러져야 참 맛"

이날 방문한 고려전통식품의 죽염제조 공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하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다. 기순도 표 제품들에 공용으로 들어가는 죽염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장정 두 명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는 커다란 가마에는 부안산(産) 천일염이 담긴 담양산(産) 대나무 통 100여 개가 구워지고 있었다. 소나무 장작에서 일으켜진 불로 2m 길이의 대나무 통이 모두 타고 안에 든 소금이 벌겋게 녹아내리는 시간은 약 3일.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죽염은 이 같은 과정을 9번 되풀이하는 산고를 겪어내야 한다.

된장과 간장, 고추장의 원료인 메주를 만드는 과정도 녹록치 않다. 유기농 콩을 모아 동짓달 말날(음력 11월 12간지 중 우(牛)자가 들어간 날)을 받아 메주를 만든 뒤, 짚에 메달아 한 달 정도 발효를 시킨다. 잘 뜯(발

효된) 메주를 죽염수(죽염을 녹여 만든 물)가 담긴 항아리에 넣어 5개월 이상 발효시킨 뒤 마지막으로 죽염수에서 빼낸 메주를 메숫가루에 섞어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면 비로소 '기순도 된장'이 만들어진다.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이름 높은 기순도 간장은 메주가 우려낸 죽염수를 달인 뒤, 또다시 항아리에서 숙성시켜 만든다. 고려전통식품의 안뜰에 놓인 500여 개의 항아리에는 항암과 니코틴·알코올해독 그리고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특효가 있다는 기순도 표 간장, 된장, 고추장이 가득 들어있다.

'기순도 된장'은 전국 주요 백화점 등지에서 1kg당 17만 원에 판매된다. 일반 된장보다 무려 10배가량 비싼 값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다. 1kg에 38만 원에 판매되는 10년산 된장은 내놓자마자 돈나는 인기

상품이다. 최근엔 CJ나 농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함께 사업을 해보지'는 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순도 표 제품들이 명성을 날리게 된 데에는 슬로시티인 이곳 창평의 자연조건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공장으로 쓰이는 기 대표의 집은 예전부터 장 담그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평을 들어왔다. 집과 항아리를 둘러싼 수천 그루의 소나무에서 날리는 송향가루, 그리고 지하 150m에서 퍼 올리는 암반수가 장맛을 돋워준다는 얘기도 있다.

장흥 고씨 문중의 10대 종부이자 전남지역 최초의 장류 명인(35호)으로, 지난 1992년부터 고려전통식품을 이끌고 있는 기순도(58) 대표는 이곳에서 제조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이 된 비결에 대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 대표는 "정말 좋은 간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자연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진정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행노트

죽녹원을 다녀와서...

다시 날씨가 추워지기는 했지만 봄이 훌쩍 우리 곁에 다가온 듯하다. 따뜻한 바람에 코끝이 간질간질, 마음은 살랑살랑, 몸은 근질근질. 어디론가 떠나자는 신호가 왔다.

정말 봄 날씨 같았던 지난주 토요일 오후. '담양 한바퀴 도는 게 어때?' 느지막한 점심을 먹고 친구 셋이서 담양으로 향했다. 조금은 나른한 나윤선의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다 보니 어느새 담양이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죽녹원. 다들 따뜻한 봄날씨를 주체 못한 듯 사람들이 많다. 도로 양옆은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하고 1천 원의 입장료를 받는 입구에 길게 줄이 서 있다.

겨울철이라 푸른색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온통 대나무로 울음창창한 죽녹원에서는 푸르름이 쏟아져 나온다.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실물처럼 만들어놓은 커다란 소 한 마리. 사람들이 소 등에 올라타고 제각기 사진 찍기 바쁘다.

철학자의 길, 운수대통 길, 죽마고우 길, 사랑이 맺어지는 길(요건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다) 다양한 이름을 달고있는 길이 관광객들을 맞는다. 우린 운수대통길로 들어섰다. 중간 중간 셋길로 빠져 대나무로 만들어진 정자에서 쉬기도 하고, 원예카페에 둘러 다양한 들꽃을 구경하며 유과도 사 먹고 느릿느릿 걸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공기도 맑고 죽죽 골게 뻗은 대나무들 사이로 한들한들 걷는 맛이 참 좋다.

한참 걷는데 영화 '알포인트'를 찍었던 장소를 알리는 풋발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주인공 감우성이 썼다는 철모가 전리품처럼 매달려 있다. 조금 더 지나니, 이곳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아예 줄을 서서 대기중이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 촬영장임을 알리는 표지 앞이다. 강호동 등 출연진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찍힌 풋발 앞에서 추억을 만

드는 사람들의 표정이 유쾌하다.

오른쪽으로 꺾어진 사랑이 맺어진 길은 조금 한산하다. 죽녹원에 몇 차례 왔었는데 이 길은 처음이었다. 빨간 가방을 어깨에 둘러멘 귀여운 팬더곰(근대 팬더곰 모형이 좀 더 고급스러웠으면 싶다)과 작은 폭포가 정겹다. 대나무 길을 지나니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난다. 이런 곳이 있었네 싶다. 죽녹원은 아직도 숨겨 놓은 곳이 많은 듯하다.

입구에 마련된 공연장에서는 봄이 되면 공연도 열린다니 요것 기대된다. 죽녹원을 나와 김광다리를 건너 관방제림으로 향했다. 관방제림은 계절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 겨울철 흰 눈이 쌓인 관방제림의 모습은 환상적이다. 새이

이 돌기 시작한 봄, 울창한 푸조나무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한여름, 낙엽지는 가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 관방제림을 걷다 자전거와 말이 소 등에 올라타고 제각기 사진 찍기 바쁘다.

울음창창 대나무숲 푸르름에 심신 씻고

흰눈 쌓인 관방제림 행복한 '눈 호강'

다시 차를 몰아 그 유명한 메타세콰이 길을 달린다. 영화 '와니와 준하'를 이야기하며, 지금도 좋지만, 푸른 옷을 갈아입은 메타세콰이이길은 정말 멋지다며 모두 한마디씩 한다. 담양 리조트와 금성산성에 들르니 어느새 저녁을 먹을 시간이다.

뭘 먹을까. 돼지갈비, 아니면 그 유명한 진우네 국수. 오랜만에 국수를 먹기로 하고 허가 열열할 정도로 매콤한 비빔국수에 천원에 4개 하는 삼을 달갈을 시켰다. 3명이 배 부르게 먹었는데 1만 원. 행복한 눈호강에, 맛난 음식까지 '하루 나들이'로는 제격이었다.

푸벅이죽인 친구는 죽녹원이며 관방제림을 계절마다 둘러보고 싶다며 광주에서 담양까지 오가는 버스를 체크하느라 부산한다. 담양, 광주 가까이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다.

이혜경(한국어 교사·광주시 서구 용암동)



담양 죽녹원에 들어서면 울음창창한 대나무숲과 함께 '철학자의 길', '운수대통길' 등 다양한 이름을 달고 있는 아름다운 길이 관광객을 맞는다.

남성 헤어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님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 **MAVER**

가발

SBS-KBS 「사람세상」 출연

초슬림!!

최선을 추구하는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불행은 인연을 놓아주는 영리한 불행자가 되겠습니다

프리모 (주) 02-450-3102, 02-450-3103, 02-450-3104

프리모 (주) 02-450-3102, 02-450-3103, 02-450-3104

수많은 사례! 그레고리 원리!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많은 재혼회사는 수단이 많지만! 하지만! 믿음을 얻을때! 재혼판결! 생김새도! 고민해준! 회사는! **신체출발! 행복가!**

마음신체! **김재출발!** **행복출발!** **행복출발!**

이탈! 미국에는! 재혼! **행복출발!**

The Day (주) 행복출발

02-527-3388